"1인 창조기업 키워 줍니다"

지방중기청 오늘 광주 유동에 비즈니스센터 개소

1인 창조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광주에 문을 연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유동 YWCA 1층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개소식을 갖고 1인 창조기업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문을 연 비즈니스센터는 광주·전남지역 내 1인 기업의 상업화 및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개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경영자문, 자금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주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광주를 비롯, 전국에 1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 비즈니스센터는 158㎡내에 공동 사무공간(6곳)과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1인 기업의 비즈니스 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1인 기업을 위한 세무·회계·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광주센터측은 향후 창조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 광주·전남에서 1인 창조기업이 올해 안에 200개까지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특히 1인 창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창업의 어려움이나 창업을 발목잡는 규제 가 개선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선 광주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장은 "센터가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1인 창조기업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인 창조기업=창의적 아이디어나 전문 기술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기업. 전통식품(고추장·간장) 및 주류, 공예품 제조나 문화 콘텐츠(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서비스업, 인터넷 등 IT 관련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창업하고 있다.

내 취업 운 궁금하네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한이음 일자리 엑스포'에서 시민들이 취업타로카드 부스를 방문해 자신의 취업운을 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쏘울, 2010 美 추천차종

'컨슈머 다이제스트' 선정

기아차 쏘울〈사진〉과 현대차 제네시스, 그랜드카니발(수출명 세도나)이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 다이제스트'에서 선정한 '2010 추천차종'으로 뽑혔다.

연간 150만부가 발행되고 있는 컨슈머 다이제스트(Consumers Digest)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성능, 편의사양, 유지비 등을 평가해 매년 추천차종(BEST BUY CARS)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10년형 240여개 모델을 평가해 모두 10개 부문에서 48개 모델을 추천차종으로 정했다.

기아차 쏘울은 소형차(small car) 부문에서, 그랜드카니발은 미니밴(minivan) 부문에서, 현대차 제네시스는 럭셔리카(luxury cars) 부문에서 각각 추천차종으로 선정됐다.

특히 기아차 쏘울은 미국 진출 첫해 개성있는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유지비용 등을 인정받아 추천차종으로 뽑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전자, 더 똑똑해진 로봇청소기 출시

삼성전자는 5일 카메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초당 30회 간격으로 촬영, 스스로 청소 영역을 인지하는 기능을 갖춘 로봇청소기 '탱고'를 출시했다.

카메라 센서, 자이로 센서 등 13개 청소 관련 센서가 있어 먼지를 보고 찾고 흡입해 필터로 거르는 7단계로 청소 기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또 충돌·추락·들림 방지 센서 등 26개 안심 센서가 분당 6천 번 공간을 분석해 주위 물체에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1cm에 불과했던 문턱 이동 가능 높이도 2cm로 높아졌다.

고급형 제품에는 청소 경로 차단 기능인 'i-지킴이'를 부착, 노약자, 유아 등 보호해야 할 사람이나 고가의 가구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흡입구의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카락 엉킴 방지 솔이 부착됐고, 사용방법과 진행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갖췄다.

제품 가격은 고급형 모델이 70만원선, 보급형은 50만원 선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영업도 폐업땐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입법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보험료의 비율은 월 평균소득의 2%로 각각 설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